

광주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만든다

39억 들여 북구 건국동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2023년 개소 남구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반려동물 문화교실 내년 조성

광주시에 반려동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물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동물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3년째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려가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건국동에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센터는 국·시비 39억원을 들여 600마리 보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광주는 지난 5년 기준 1일 평균 8건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

황이다.

시는 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 반려동물을 합부로 버리는 행위를 줄이고, 입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 예방,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내년부터 남구에 조성·운영한다.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유기동물을 소개하고, 반려인과 자연스럽게 만나 가족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동물 건강

과 행동 교정, 펫티켓(펫+에티켓)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반려인에게도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키우는 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내년 개장을 목표로 광산구에 지역 최초로 4000㎡ 규모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도 조성 중이다. 시는 도심공원 산책시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신규 공원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해 동물복지 전문가와 관련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동물복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물복지 거버넌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관련 예산도 2019년 11억원에서 올해 24억원, 2021년 53억원 등 해마다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박남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반려동물 복지는 시민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며 "반려동물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관련 시설과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1200만명 시대에 진입했으며, 광주에서는 35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학대 예방 등 32건 제안·논의

광주시 '쓴소리 위원회'

광주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쓴소리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시민의 쓴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20일 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들이 전체·분과별 공유방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제안된 안건 가운데 4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8건을 서면 검토했다.

위원회는 취약가정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예방·관리대책 수립, 취업 활성화 사각지대 해소,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버스 정차금지·통학버스 블랙박스 이용주정차 단속, 무등산 권역 문화관광·지질공원 해설사 배치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각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쓴소리 위원회는 18세 이하 무상 의료 지원, 대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축구 전용구장 편의시설 확충, 5·18 사적지 14호 주남마을 인근 양민학살지 버스 승강장 조형물 이설 등도 요청했다.

최태진 쓴소리 위원회 부위원장장은 "출범 초기인 만큼 아직 운영에 개선할 점이 많지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면서 광주시에 쓴소리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 현안에 시민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첨단산단 오·폐수 처리시설 10월 착공

144억 들여 하루 1천t 처리

광주시가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 벨리 입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10월 착공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1단계 사업을 통해 144억원을 들여 하루 1천t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지난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정된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 벨리 투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는 공사를 긴급 발주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비비용은 연면적 1181㎡에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2022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지상에 나무를 심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휴식·활동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공 건축 등 심의·조정 건축정책위 출범

건축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광주 시 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건축정책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하고 김종호 행정부시장을 초대 위원장, 함인선 광주시 총괄 건축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심의·자문기구로 민간 위원 22명, 당연직 위원 4명, 시의원 1명 등 27명으로 구성됐

다.

임기는 2년이며 공공 건축 사업 기획, 건축 정책 비전 제시 등 지역 건축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한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건축정책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건축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의 질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출범식.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출범식이 24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호철현대 바이리안 목포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도의회의장, 김종갑 한전시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감염병관리과 신설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재난 예방·대응 기능 조정

광주시가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 확대, 경제자유구역 신설 등을 핵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28일 관련 조례·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 건강정책과 내 감염병관리팀을 확대·재편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한다. 중·단기 감염병 대응 대책 수립, 역학 조사관 양성, 의료 자원 확충 등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에는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해 호흡기 관련 감염병 진단 검사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광주시는 또 '재난예방과', '재난대응

과'의 기능을 조정해 '자연재난과'와 '사회재난과'로 재편한다.

재난대응과에서 자연·사회 재난 업무를 모두 맡아 동시다발적인 재난 발생 시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에는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2021년 1월 출장소 형태로 출범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시 조직은 1개 과가 늘어 4실, 8과, 2본부, 68과로 조정된다. 정원도 3940명에서 39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될 조직개편안은 10월 2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추석맞이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활전복·참조기 등 30% 할인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2일간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차량 안에서 주문하고 판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매 품목은 활전복과 참조기, 참돔, 민어, 활새우, 해조류세트 등이며, 1만~3만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보다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할인판매 행사를 비롯 수산물 드라이브스루를 펼쳐왔다.

또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319개 GS수퍼마켓에서 수산물 판촉 기획전을 갖는 등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을 전개해 총 86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에서 생산된 저렴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한기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수산물 비대면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산물 가정간편식(HMR)을 개발 중이며, 출시와 동시에 온라인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업박물관서 오늘 첫 벼 수확 '올벼심니' 재현 행사

올해 첫 벼 수확에 대한 감사의례인 '올벼심니(뜻바심) 재현행사'가 25일 오전 전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간 침체된 분위기를 반영해 코로나19종식을 기원할 산상분화(山止焚火) 제례도 함께할 계획이다.

올벼심니는 지역에 따라 올벼심니와 올기심리, 올벼심니 등으로 불리는 전통 천신의례로 최근에는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전통농경문화다. 그해 첫 수확한 벼를 찿는 쌀로 밥을 지어 가장 먼저 조상에게 '올

벼(일찍 된 벼)로 심례(마음의 예)를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 마당으로 진행된다. 첫째마당인 의례마당에서는 올벼이삭(신체) 걸기와 조상단지 걸기, 천신의례 등을 재현하고, 둘째 마당인 체험마당에서는 올벼 타작, 찌기, 말리기, 찿기, 인절미 떡메치기 등을 전시 형태로 구성한다. 이어 마지막 마당으로 불리는 마당은 올벼 밥과 인절미, 올벼 쌀(찿쌀) 음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뒤흔세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족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玉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연락처 : 051-504-8912 팩스 : 051-504-8913

◆ 편찬위원장: 옥 삼중, 옥 형길,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 치 남 010-3550-8912